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부활 제 5 주일]

2009년 5월 10일

<제1독서> 사도행전 9,26-31 <바르나바는 어떻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는지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제2독서> 요한 1 서 3,18-24 <믿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화답송

◎ 주님, 큰 모임에서 드리는 저의 찬양도 당신에게서 오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끝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민족 모든 가난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자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 요한 15,1-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35 봉헌: 258 성체: 180 파견: 129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정상혁 토마스아퀴나스, 김현숙 엘리사벳

다음주 독서: 이종재 프란치스코, 전은숙 글라라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피나

다음주 복사: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요한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78

교무금: \$ 200

감사헌금: \$ 1000

(이미혜 자매님)

매일미사 \$ 5

합 계: \$ 1383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5월 22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5월 15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오늘의 묵상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 버린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삶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사는 것이 불안하기에 ‘신비스러운 힘’을 찾습니다. 굶을 하고 부적을 지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시도하려 애씁니다. 조상의 묘를 탓하는 이도 있습니다. 터가 좋으면 복이 오고, 터가 나쁘면 화가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묘를 옮기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좋은 터와 나쁜 터를 함께 밟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앞날은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평범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에서 오는 ‘생명의 물’을 받아야 자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은총’을 받아야 건강한 삶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요행에 매달리면 불안은 곁에 있기 마련입니다. 잘려 나간 가지는 ‘뿌리의 힘’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보다 구속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원인은 포도나무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바울이 - 유판식 토마스 >



살아있는 말씀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 구요비 읍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우리나라에 '포도나무'가 들어오고 포도 재배가 자리 잡는 과정에 선교사 신부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지금의 안성(安城) 포도가 불란서 신부에 의해 번식되었고, 1910 년대에 지금의 대학로가 자리 잡은 동송동 일대는 넓은 포도원 농장이었다. 선교사들은 포도 농사를 통해 가난한 교회의 살림을 꾸려갔던 것이다. 이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백성에 대한 목자적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농부인 하느님 아버지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 사이에(1 절), 그리고 포도나무인 주님과 그 가지인 우리 인간 사이에(5 절) 이 사랑이 깊게 배어 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구세사 안에서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인간은 광야에서 마구 자라온 야생 포도나무와 같다(이사 5,1-7). 하느님은 이 포도나무를 지극 정성으로 키우고 돌보아 주시지만 그 결과는 늘 실망과 후회뿐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걸어온 기대와 희망을 성취하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1 절).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운명을 담고 있다. 포도 농사꾼은 겨울에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이때에 좋은 나뭇가지도 전지(剪枝)하는데, 이는 수액을 모으고 많은 포도송이를 소출해 내기 위해서이다. 이런 가지치기가 없을 때 포도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랄 뿐이다.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할 때 포도나무가 아파서 운다고들 말한다. 포도의 수액은 나무의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가 가장 많이 흘러내린다. 어디 그뿐이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맛깔진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버서지고 으깨어져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운명을 사셨다. 십자가 나무 위에서 피흘리는 참혹한 고통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포도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마르 14,25)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자신인 참포도나무에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서 마실 새 포도주가 빚어진다.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일치의 기쁨과 행복을 십자가 의성 요한은 이렇게 설명한다.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하느님과의 친교가 영혼 전체 안에 실제로 펼쳐지는 것이며, 영혼이 하느님 안에 변화되어 사랑하는 님(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 안에 두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마시게 하신다"(영적찬가 26).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하고 여덟 번이나 반복해서 호소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4 절)'는 말씀은 바로 기도 생활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기도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신앙 행위가 되어야겠다. 이는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7 절).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의 정신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기억하고, 갈망하고, 관상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 <알려드립니다...>

❖ 성당 여름 캠프가 6/20 (토)-6/21(일) 이틀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매디슨 북쪽의 Pine Lake United Methodist Camp 입니다 (<http://www.wisconsinumc.org/PineLake/index.html>). 작은 호수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캠프 사이트입니다. 5월 셋째주부터 (5/16) 참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름 일정을 확인하셔서 많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름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 새로운 구역 편성이 정해졌습니다. 나누어드린 구역표를 확인하시고, 오늘 친교시간에 구역별로 모여 구역장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이 정해지면, 구역담당 사목위원 정종연 베드로 형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바자회 결산내역입니다. 모든 구역에서 재료를 부담,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총 판매액: \$4505.30

재료비: \$1729.66

기부금: 이미혜 자매님, \$500
익명, \$500

판매수익: \$2775.64

기부금: \$1000

수익총액: \$3775.64

간장종지

5월엔

계절의 여왕 5월엔 제게도 작은 기쁨 몇 개 있나이다
어린이날 손주에게 무슨 선물 줄까 고민하는 기쁨
어버이날엔 아이들 모여와 오랜만에 만나는 회우의 기쁨
그리고 성모님 밤에 가끔 시 한 편 써서 바치는 기쁨
장미 한 다발 마음으로 바치는 기쁨도 있나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신록에 눈 멀어 산과 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 그리워 밤 이슬에 젖어 오실 것만
같은...



홍윤숙 데레사.시인 / 박수구 요셉.